

추미애 “한전공대 설립 전폭 지원할 것”

민주 광주서 첫 현장 최고위...대선 공약 실천 재확인 “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반드시 진상 규명”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대선 이후 첫 현장 최고위위원회의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한전공대 설립과 에너지산업 육성,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 등 대선공약 실천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9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호남에서의 5·9 대선 압승은 당사자들의 노력이 컸고 감개 무량하다”가 격려한 뒤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호남 공약’은 이제 시작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5·18정

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광주정신을 이어갈 것이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힘을 모아 아직도 이루지 못한 5·18 진실 규명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포항공대 버금가는 한전공대 설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에너지산업 고급인력을 육성할 것이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조속한 활성화로 명실상부한 문화수도를 만들겠다”면서 “또한 광주의 자동차산업에 전장산업을 더해 미래 친환경차 중심도시로 키워서 오랜 세월 차별과 홀대, 고통을 받아온 호남의 아픔을 보듬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취임 한 달을 맞은 문제

인정부와 함께 광주·전남 발전과 인재 등용에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남겼다.

추 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은 호남 인재 중용과 발전을 책임지겠다는 진심 어린 결정”이라며 “민주당 역시 당차원에서 전폭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형석 최고위원 겸 광주시당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30일 간의 행보는 5년 간 제3기 민주정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자평한 뒤 “이제 대선 승리에만 취해 있어서는 안된다.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박재자, 조종훈 등 지역위원장들도 공약 실천에 대한 당부와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은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과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언급한 뒤 “여러 공약에 더해 SOC 분야도 이 기회에 살펴 주실 것”을 당부했고, 서삼석 전남 무안·

신안·영암지역위원장은 “가뭄 문제 해결이 긴급하다”며 영산강 4단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추 대표와 당 지도부는 현장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이날 오후 나주혁신도시 한전 사옥에서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에너지밸리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혁신도시를 보면 공통적으로 관련 분야의 대학과 상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한전공대 설립도 좀 더 치밀하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빛가람혁신도시와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지역혁신산업의 대단한 성공사례이긴 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며 앞으로 국가 과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통신비 절감안 미흡”

국정위, 미래부 재차 압박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미래부를 재차 압박했다.

국정위 경제2분과는 지난 10일 오후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등을 불러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미래부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도의 절감방안에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에서 방안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만족할만한 해법이 나올 때까지 미래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국정위와 미래부간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본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의 진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대선 보편적 요금인하에 대한 논의는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위원장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편적 인하 방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통신 3사가 자발적 요금 경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알뜰폰 활성화로 통신시장 역동성을 제고함으로써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료 부담 경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낙연 국무총리(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10일 오전 목표신항 세월호 거치 장소를 찾아 미수습자 가족 면담과 수색 상황을 보고받은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취임 후 첫 호남 방문 ‘민생행보’

목포신항서 미수습자 가족 면담·군산 AI 방역상황실 격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취임 이후 호남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이 총리는 가장 먼저 세월호가 인양된 목포신항을 찾아 미수습자 가족들과 유가족들을 잇따라 만나 면담하고 이어 세월호 선체 수색 진행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후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린 전북 군산에서 송하진 전북지사

와 문동신 군산시장, 전북도내 지자체 부군수 등으로부터 방역추진 상황을 보고받

고 AI 방역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와 농협 등 관계기관은 인력과 예산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라”며 “군·경이 살처분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니 잘 연계해 방역 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에서 군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영광 선진 묘소를 참배하고 고향 주민들을 만난 이 총리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저녁을 함께 하기 위해 군산에서 전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전주 처가에 들르는 등 개인적인 일정도 소화했다.

이 총리는 또 점심을 운영한 광주시장, 저녁을 송지사와 함께하며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윤 시장과 송 지사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에너지밸리 사업, 새만금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지난 2014년 전남지사로 당선되자마자 유아무아했던 호남권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하고 광주·전남·전북의 상생을 주도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대선 패자들 ‘기지개’

洪 당권 행보·安 복귀 구상·劉 강연 정치·沈 전국 순회

지난 5·9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여야 대선 패자들이 ‘권토중래’를 꿈꾸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대선 패배 후 한 달간 숨 고르기를 끝낸 후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홍 전 지사는 오는 19일부터 경남·부산·울산 등 PK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대전·충남, 충북, 인천, 경기, 서울, 제주 등을 돌며 전국 시·도당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7·3 전당대회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 대표 출마를 위한 ‘당심 다지기’가 될 전망이다.

대선 패배 직후 낙선 인사를 마무리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들어 ‘복귀’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택에서 머무르며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을 부지런히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향후 정치 복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선을 그치고 있다.

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은 복 콘서트, 신입 당원과의 만남 등 행

사에 참석하면서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6·26 당원대표자 대회에서 ‘유승민 등 판론’이 유력하게 제기되기도 했지만 백의중군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지난달 28일 신입 당원과

의 만남에 이어 전남 서울 강남의 한 서점에서 복 콘서트도 열고 “지금도 보수를 바꾸고 싶어서 정말 미치겠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당분간 대학을 중심으로 강연 정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표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내달 당 대

바른정당 당권경쟁 윤곽

김영우·이혜훈·하태경·정운천·정미경 출사표...황영철 고심

바른정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6·26 당원대표자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도전 유력 후보들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11일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은 김영우·이혜훈·하태경·정운천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 등 총 5명이다. 황영철 의원은 막판 고심 중이다.

당의 최대주주인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은 일찌감치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애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김세연 사무총장과 김용태 의원도 출마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서는 새 대표 경쟁이 김영우 의원과 이혜훈 의원의 2파전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김 의원이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선언한 만큼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이혜훈 의원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역전승을

거둘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선거인단 반영비율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30%나 차지하기 때문에 투쟁을 열어봐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당 선관위는 당원(책임 50%·일반 20%) 투표를 마친 뒤 24~25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한다.

당 선관위는 16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총 5차례의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실시해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한다.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가 되며 2~4위에 오른 후보자는 자동으로 최고위원 원직에 오른다. 다만 2~4위 안에 여성 후보자가 없다면 4위 남성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 4위 안에 들지 못한 여성 후보를 채우게 된다.

바른정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12일부터 이틀간 받을 예정이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 총 매입금액 : 11억원
▶ 1인 2,000만원 이상
▶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